

## EU, 11억 유로 규모 CEF 2026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범유럽교통망 구축 추진

| 해당국가 | EU | 기관(기업) | 유럽집행위원회 | 동향분야 | 정책 | 국토교통<br>기술분류 | 시설물 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|
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|

□ 유럽집행위원회는 범유럽교통망(TEN-T) 구축과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총 11억 유로 규모의 CEF(Connecting Europe Facility) 2026년 지원사업 공모를 개시

- 이번 공모는 EU와 우크라이나·몰도바의 교통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 사업을 대상으로 총 11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
  - 유럽집행위원회는 산하 집행기관 CINEA를 통해 총 11억 유로 규모의 CEF 2026년 교통 인프라 공모를 개시
  - 선정 사업은 범유럽교통망의 완성과 현대화에 기여하고 TEN-T의 연결성과 이동 효율을 높이며 지속가능성·상호운용성·회복력 강화를 추진
- 이번 공모는 범유럽교통망 규정(2024/1679)에 따라 철도·내륙수로를 중심으로 전동화와 항만, 군수 이동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
  - 범유럽교통망 코어망의 철도 사업과 내륙수로 사업, 그리고 군수 이동 관련 사업을 이번 공모의 지원 대상 분야에 폭넓게 반영
  - 도로 화물과 공항 부문의 전동화, 해상·내륙 항만 충전 인프라, 대체연료 선박 개조, 국경 교통 인프라 개선, 도로 디지털화 사업 등을 지원

□ 공모는 Funding & Tenders 포털을 통해 2026년 10월 6일까지 접수하며 집행기관 CINEA가 평가와 사업 관리를 담당

- 2026년 6월 24일 온라인 설명회가 열리며, 신청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(브뤼셀 시간)로 설정
  - 온라인 설명회는 2026년 6월 24일 열려 이번 공모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, 평가 과정 등을 신청자에게 상세히 안내 예정
  - 해당 공모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연계된 다중모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EU 교통정책에 따라 추진되며, 여객과 화물 운송의 효율성과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
- 제안서는 독립 전문가와 유럽집행위원회·CINEA가 함께 평가하며, 이번 공모는 일반·결속·군수 이동 예산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를 추진
  - 제안서 평가 결과는 신청 접수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통보되고, 선정된 사업의 보조금 협약은 9개월 이내에 체결 예정
  -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철도망 구축과 내륙수로·해상항만 인프라 개선,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중점 지원

※ 출처 : 유럽집행위원회(2026.06.19.), CEF Transport: €1.1 billion availabl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across the EU